

제 10 장 사도 행전 Tape #8099

1 절 “가이사라에 고벨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성경에는 다른 백부장도 소개하고 있고, 그들 모두는 지위가 높은 인물처럼 보이는데,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에서는 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한 병에 걸린 하인을 데리고 살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할 것입니다(마 8:5-13).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뢰기를, 이 백부장은 우리의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는 선한 사람이며,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시고, 하인을 고쳐주시려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시고 있다는 전갈이 백부장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마도, 여보! 집이 지저분하고 하인은 병석에 누워있어요. 그 분이 그곳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여기로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모든 것이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있는데...! 그래서, 그는 다른 전령을 보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권위를 알며,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 사람이 있어, 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알기로, 단지 당신이 하셔야 하는 일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로마 백부장에게서 나타났던,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자로서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마 27:54). 그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백부장인 고벨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로마 수도인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로마 행정관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2 절 “그는 독실한 사람ियो,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할 것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크게 칭찬 받을 만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이지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을 찾아본다면, 이곳은 그것의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장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디게 밑에서 그 나라의 내시였던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성경구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직접 도와주도록 이 가자 지역으로 빌립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신적 지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취되도록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며, 그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유일의 사상을 유대주의로부터 소개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신을 가진 로마나 로마주의의 이교도에 뿌리를 둔 자에서 유일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었는데, 그가 독실한 사람이기에, 다시 하나님은 신적 중재와 신적 관계로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도를 나눌 사람을 보내심으로, 신적 관계로 이 목마른 영혼을 만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보게 되는데, 3 절 “하루는 아홉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벨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4 절 “그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나니,” 5 절 “지금 사람들을

읍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6절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자기에게 갈급한 자를 만나러 가셨을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그에게 베드로가 있는 곳을 지시했는가와 어떻게 그가 더 완전한, 더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이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7절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집안의 종 들과 또 계속해서 섬기는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를 하나 불러,” 8절 “이 모든 것을 밝히 말하고 읍바로 보내니라.” 약 50km 의 길, 즉 가이사라와 읍바 사이는 40-50km 쯤 됩니다. 종 들과 군사 하나가 그를 돕기 위하여 읍바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9절 “이튿 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여섯 시쯤 되었더라.” 항상 하나님께서 양쪽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시하실 때, 그의 마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쪽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도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있어 양쪽에서 일하신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인데, 종종 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해 내 자신의 마음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하

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에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위하여,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 나에게 확신시키지만, 어떤 때는 장벽과 같은 것에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실 때, 그 분은 양쪽을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점점 없애십니다. 만약 사람이 와서, 우리가 비전 하나가 있는데, 티화나로 내려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나에게 타마레스나 인치라다(역자주, 멕시코풍의 음식 이름들)를 보여주시지 않거나, 멕시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양쪽에 일을 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 분은 당신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또 종종 그 일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나누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베드로는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섯 시는 정오에 해당합니다. 10절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리고, 그는 먹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 빠져,”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통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데 땅으로 내려오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이 있더라.” 13절 “또 한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릴 수 없나이다,” (헬라어로 ‘그릴 수 없나이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보다 약간 강한 뜻을 가집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는 뜻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것인데, 주여,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갖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기를,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러나 그는, 주여,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갖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조화롭게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논쟁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것은 모순과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처음 음성이 그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할 때, 그는,)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매,” 15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절 “이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자, 유대인들에게만은 이방인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끈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한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전통에 묶인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이 때로는 교리보다 진한데, 교리적으로 볼 때, 전통들이 건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자란 베드로는 이방인을 깨끗하지 못한 자들로 관찰했으나,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과격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인식을 말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은 믿지 않았기에, 구원에 관한 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고서야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믿음으로 반드시 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서였으니, 곧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감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그 전통에서 깨려고 하시는데, 비록 베드로가 이제 깨지기 시작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나중에 가면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안디옥의 이방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었으나, 그들이 오자,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안디옥 교회가 나뉘는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 바울은 이 나뉘에 대한 원인 제공 때문에 면전에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분리하여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과 먹을 때, 심지어 바나바도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나뉘에 그만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긴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전통은 자리를 깊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있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본 이상이 세 번씩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 즉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17 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궁금해 할,” (당황해 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그들이 옹바에 도착해서, 시몬이 어디에 사는가? 하며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인도되어 지금 시몬의 집 대문에 도착했습니다.

18 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살고 있느냐 하더라.” 19 절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오니,”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주님은 이 환상을 명백하게 하시려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 고넬료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찾는 세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 절 “그러므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매,” 지금도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문을 모릅니다. 이상한 환상을 가졌다는 것과 주님께 비난을 받았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적하시며, 그들을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 절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22 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 백성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더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지시를 받아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으며, 그는 독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23 절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목계 하고,”** (이제,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집에 이방인을 초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앉아 있는 곳은 모두 불결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이기에, 의식상의 불결함은 이방인을 만진다거나 이방인이 만진 것에 손을 대면 옮겨질 수 있다고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여 밤을 지낸다는 것은 바로 그 선입견을 깨기 시작하는 일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튿 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읍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동행하니라.” 그와 함께 간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을 했을 것이기에 증인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읍바에 있는 교회에서 여섯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 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간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회의로 불러간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와 논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이방인에게 갔었지요? 라고 묻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방인에게 갔기 때문에 심의하려고 불렀던 것이죠. 이 정서는 매우 강한데, 우리가 그들의 가슴과 마음에 있었던 과격한 선입견을 상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무척 어렵습니다.

24 절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매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기다리더니,” 25 절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이 ‘경배’는 그가 실제로 베드로를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동양식의 예절로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26 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사람의 추종이나 경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 사람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려고 관심을 보이며 그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히 다른 것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종의 높이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침노하는데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존경과 추종으로 그들을 붙잡으려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종종, 그들이 존경받는 자이기에 부르심이 있었다거나, 그들이 가장 존경할 자, 또는 가장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개인을 높이고 있으므로 직위에 직위를 더하기 시작하고, 사람 개인이 추앙을 받기 시작하며, 그를 위하여 흉상을 조각하여 세울 때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사도였으나, 사람들이 흉상을 세우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므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로 높아지는 것을 항상 조심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나의 반지에 키스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비록 첫 번째 교황이었으나,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라고 말했던 말입니다. **27 절 “그와 말하며 안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음을 보고,”**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발걸음을 딛었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에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 본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이해로는 철저히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으로 그 종이를 볼 수 있었고, 그 동물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입견과 전통을 대적하고 그 집의 문지방을 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8 절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29 절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매,” 30 절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아홉시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절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사람의 관용을 아셨습니다. 그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자가 말하기를, 32 절 “그러므로 사람을 읍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시니라.” 33 절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있으며, 보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오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34 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신명기에서 선언하셨는데(신 10:17), 이것은 다시 나타나는 주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야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시 82:2), 물론 이것은 바울이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집어낸 주제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35 절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고 보셨기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마음을 인정하셨으며,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체쳐 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진 빛과 명철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명철에 이를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눅 12:42-48 에서, 예수님은 청지기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난 주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흘러도 돌아오지 않자, 청지기는, 음!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는가보다 하며, 그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셔 버리고, 그의 권위 아래 있던 것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직위와 권위를 박탈당합니다. 너는 형벌에 놓일 것이라! 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던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않았기에 많은 채찍으로 치라고 주인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많은 매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맞긴 자에게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논쟁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결코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불공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때 그 분은 공의로우실 것이며, 사람에게 주어진 빛과 명철에 의해 그들은 판단될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들었으나 거절한다면, 그들이 모르고 행해 일들을 더 나쁘게 행한 자들보다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간파했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실 것을 압니다. **36 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동료 인간과의 평화는 바울이 에베소서 2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엡 2:14), 예수님께서 나라와 종족 사이에 존재하는 벽과 장애들을 깨뜨리시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같은 수준에 서는데,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지적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니,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 무슨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그 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의 주시니라!” 37 절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중에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그립바 왕에게, 당신은 이 일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무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그 분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알만큼 매우 장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구석에서 된 일은 아니지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고, 그 분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 분은 어떤 작은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사역한 것이 아니기에,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서 전 유대 지역에 알려지고,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설교했던 당시의 침례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8 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 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분과 함께 일하셨음이라.”**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분과 함께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39 절 “우리는 그 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이 그 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40 절 “하나님께서 그 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사 그 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으니,” 다시 부활의 메시지로 가는데, 이것은 나사렛 예수를 규정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선한 일을 하러 다니시며,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분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시어 나무에 달리셨으나, 하나님께서 삼일 만에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1 절 “이것은 또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그 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 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여러 경우에 그들과 잡수셨습니다. 그 분은, 나는 영이라, 그러나, 내가 먹는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다른 경우에 그들과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가 그 분을 공개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임이라(요 14:19)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 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그 분은 믿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분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보이신 것이죠. 그 분이 전에 택하셨던 자들, 우리에게까지 예정되었습니다.

42 절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그 분이심을 증거 하게 하셨고,” 전체로 심판하십니다. **43 절 “그 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 분을 믿으면 그 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대언자들은 메시야의 오심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을 믿는 자들은 죄의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모든 대언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가로 막히는데, 성령님에 의해 가로 막힙니다. **44 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매,”** 아마 두 번째의 오순절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45 절 “할례에 속한 자로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여주시는 것으로,”** (믿을 수가 없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니, 그럴 수가 없소! 그러나 그들이 기름부음을 받았습시다!) **“인하여 다 심히 놀라니,”** 자, 2 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여졌을 때, 120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큰 무리가 일어났던 이상한 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설교했고, 그들이 찢려, 우리 형제들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들의 사면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가 오순절이었는데, 그가 그 당시 성령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점을 실제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복음을 받은 이방인의 대언자들에 의해 성경구절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자들은 충격에 쌓였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46 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47 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48 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 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므로, 이것으로 여기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오늘날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동일한 입장에 놓으셨고, 어떤 사람에게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더 낫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고, 그의 국적이나 그의 종족의 배경 때문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종족 배경과 특성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종족들은 그들이 다른 종족보다 어떤 특성 혹은 특색 등등 때문에 우수하다고 느끼는데, 우리와 같은 미국인과 결국은 앵글로 색슨 미국인의 대부분이 자기들을 우수한 민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가 누구이든지, 어디 태생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는 구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뉴기니아의 정글 속으로 가는 것도 흥분이 있고, 여전히 원시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들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어떤 것은 그들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데서 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던 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나보다 수 마일은 앞선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아버지,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 당신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죄 용서함에 대한 축복과 당신과 교제함의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나와서 요청하옵기는, 우리가 읽은 대로, 주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지시하신 것처럼, 고넬료를 지시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우리 마음과 삶에서 행하소서. 주님 당신과 더 가까운 장소에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넓게는, 주님! 특별한 문제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사역에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음 함에 있어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